

공주 허수아비 축제

허수아비에게 새 생명을! ‘창조의 기쁨’ 맘껏 즐겨

공주 허수아비 축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간이 무척 길다. 한 달간 만들고 한 달간 전시하기 때문이다. 재료도 따로 챙길 필요없이 마을에서 다 준비해 둔다. 물론, 자신만의 독특한 허수아비를 만들고 싶다면 옷가지나 필요한 것을 챙겨가도 된다.

가을을 앞두고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정안면 문천리, 공주시로 진입해 마곡사 가늘 길로 한참을 가다보니 하나 둘, 허수아비가 나타난다. 깡통로봇을 닮은 허수아비부터 아저씨·아주머니·개구쟁이 아이·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허수아비가 전시(?)되어 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난다. 참새가 허수아비를 보고 과연 놀라서 도망갈지, 아니면 어깨에 앉아 여유를 부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동네 할아버지의 든든한 응원

사실적으로 잘 그려 놓은 마을 앞 현황판에 따르면 마을엔 모두 78가구 216명이 살고 있었다. 작은 마을은 아니다. 마을회관 옆,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곳이 허수아비 제작소였다.



어찌할지 몰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사이 마을회관 앞 주택에서 서정식(76) 할아버지가 나온다. “허수아비 만들러 왔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걸로 얼른 만들어요.”

처음엔 그냥 어디 다른 집에 마실가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예 주저앉아 허수아비

뼈대를 골라주고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미 앞서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만들어 정자에 기대놓은 허수아비가 많아 그냥 각자 알아서 만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다.

할아버지에게 축제에 대해 묻자, “이게 매년 하는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야 다 일하러 가야 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가 관리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녀. 아주 귀찮아 죽겠어”라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처음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축제 홍보를 보고 찾아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별로 좋진 않았다.

아무튼 그렇게 허수아비 제작에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골라준 천을 허수아비 머리 부분에 둘둘 감고 잔뜩 쌓아 놓은 옷 중에 입히기 어려운 것을 골라 몸통도 만들어 주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기면서 가족단위 체험객이 하나 둘 마을에 들어온다.

할아버지의 손길도 바빠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도록 톱질을 해 작은 뼈대도 만들어 주고 제작방법을 일일이 소개하느라 정신없다. 그 모습이 꽤 흥에 겹다.

할아버지는 완성되어 가는 허수아비를 보며 “아이고, 처음 만들어 보는 솜씨가 아닌데...”라며 허수아비 만드는 걸 도와주시며 칭찬도 잊지 않는다. 귀찮고 싫다는 할아버지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좀 씁스러워진다.

우수작품엔 ‘정안 밤’ 선물

“저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제발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 허수아비 도둑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하하” 집에서 점심을 하라고 여러번 통을 넣었으나 할아버지는 톱질을 멈추지 않았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 또 오게 되네요. 애기들이 좋아 하니까요. 철사나 옷가지 등 재료들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전시하는 것도 보아야죠.”

이숙희(32·공주시)씨는 남편을 앞세우고 예쁜 두 딸과 함께 허수아비를 만들러 왔다.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허수아비 만드는 것을



돕는(?) 아이들의 모습이 해맑다. 공주시 허수아비 축제에서 잘 만들면 우수작품을 선정해 집으로 밤을 보내준다. 공주시 정안 밤이야 맛있기로 소문났으니 은근히 기대가 된다.

허수아비 축제에서 만든 작품은 9월말까지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에서 내분리, 약 8km 구간에서 전시한다.

비록 여타의 규모있는 지역축제에 비해 조용하고 조용한 분위기라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축제이지만, 축제를 한번 다녀간 참가자들은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매니아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좀 더 많은 지역민에게 축제를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관계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느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충남 축제를 소개합니다

■ 제54회 백제문화제

- 일시 : 2008년 10월 3일(금) ~ 12일(일)
- 장소 :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

백제문화제는 1955년 시작해 벌써 50년을 훌쩍 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다.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700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백제의 의식주와 금제왕관만들기, 말타기, 활쏘기 등 다양한 백제를 체험할 수 있고, 대백제 기마군단 행렬과 백제문화 퍼레이드 등도 볼 수 있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학술회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홈페이지 : <http://www.baekje.org>



■ 공주국제미술제

- 일시 : 2008년 10월 3일(금) ~ 30일(목)
- 장소 :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임립 미술관

4개국 70여 명의 작가를 초대해 다양한 미술세계를 보여 줄 '공주국제미술제'가 10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 실내전과 함께 실외전으로 '물과 조각미술의 만남전,' '백제의 모 습전' 등이 펼쳐진다. 가족과 연인끼리 미술 관람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뽐낸 감상할 좋은 기회이다.

홈페이지 : <http://www.limlipmuseum.org/>



■ 천안흥타령축제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 5일(일)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천안역광장, 종합운동장 광장 등

올해로 6회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하는 우수축제다. '다함께 흥겨운 춤을'이라는 주제로 춤 경연과 거리 퍼레이드, 자유공연 등이 펼쳐진다. 춤 공연에는 200여개 팀, 6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밝히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ancefestival.or.kr/>



■ 기타 축제 몇 가지

- 축제명 : 예산사과축제, 연산대추축제
- 일시 : 2008년 10월 중순 ~ 11월 초순 사이
- 장소 : 예산공설운동장 일원, 연산면 일원

가을은 결실의 계절답게 탐스러운 사과, 배, 대추 등 먹거리 축제가 풍성하다. 특히 예산사과축제와 연산대추축제가 대표적인 예다. 각종 체험행사와 오감을 만족시켜 줄 행사들로 가득하다니 가족과 함께 때맞춰 둘러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리라 확신한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예산군 홈페이지 : <http://yesan.go.kr/culture/index.jsp>

연산면 홈페이지 : <http://yeonsan.nonsan.go.kr/>

